

제1절 지방의 관학교육과 순천향교*

1. 고려시대 향교의 설립과 순천향교

1) 향교의 설립과 확대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이 설치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 고구려는 372년(소수림왕 2)에 태학을 설립하였고, 신라는 삼국통일 후인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설립하였다. 서울에 학교를 세운 것과 함께 지방에도 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고구려는 지방 곳곳에 경당을 두어 경사(經史)와 습사(習射)를 가르쳤다고 한다. 신라는 소경에 학원을, 주치소에는 학교시설을 두어 지방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고구려의 경당이 서민자제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신라의 지방학교는 소경에 사는 귀족들의 자제들을 위한 것이거나, 서울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자제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지방학교기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자료만이 보여 교육시설의 규모, 교관의 파견 여부, 교육대상,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전통이 고려시대에 들어와 지방관학의 설립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는 골품제도의 제한에서 벗어나 유교적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태조 왕건은 국초부터 승유흥학책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 하나가 학교의 설치였다. 태조는 919년에 개경을 5부로 나누면서 국학을 설치하였다. 930년에는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고 박사관을 두어 생도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곡식 100섬을 학보로 삼고 이식(利殖)으로 교육재정에 충당케 하였다.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 관학이 세워진 것이다. 958년(광종 9)에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과거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각 군현에 학생들을 교육시킬 시설을 마련하고 교관을 파견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고려 초의 흥학책은 성종대에 이르러 활발히 시행되었다. 성종은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많은 관료의 선발과 등용을 계획하였다.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학을 국자감으로 바꾸면서 시설과 교육내용을 정비하였고, 과거에 복시제를 실시하여 왕이 직접 과거에 참석하면서 인재를 선발하였다. 아울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세력가들의 자제 260명을 개경에 불러들여 유학교육을 시켰다. 서울로 올라온 습업생 가운데 53명만 개경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207명은 귀향시켰는데, 이들 귀향학생들을 위하여 987년(성종 6) 8월에는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각 1명씩 파견하였다. 그리고 992년 1월에는 교서를 내려 서재와 학사를 짓고 토지를 주어 교육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 제1절은 윤희면(尹熙勉) 집필임.

이러한 조치로 12목에 교육시설이 설립되고 교관이 파견되어 교육을 시행하였다. 향교는 지방의 관학이고, 문묘와 학교가 결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에 비추어볼 때, 공자와 그 제자들을 봉사하였는지는 의문이지만 성종대의 교육시설을 향교의 시초로 보자는 견해가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성종대에 설치된 12목은 광주·양주·충주·청주·공주·진주·상주·전주·승주·나주·황주·해주였다. 따라서 승주에도 987년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992년의 조치에 따라 서재와 학사 등 학교시설이 갖추어졌다. 승주 어느 지역에 학교시설이 마련되었는지, 교육의 대상은 누구였으며 교육내용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구체적 기록이 없지만, 989년에 나주목의 경학박사인 전보인(全輔仁)이 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어 포상을 받았던 것으로 미루어 승주에서도 활발한 교육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그밖에 고려 초의 지방학교 실태를 보면 서경과 동경(경주)에 학교가 있었다. 930년에 세운 서경학교는 훗날 평양의 향교로 계승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평양향교의 시초로 기록되고 있다. 동경의 학교는 신문왕 때 설치된 국학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고려 초에 향학으로 계승되었다. 이들 2경에는 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현종, 문종대에 지방의 통치조직이 확립되고 향리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에 대한 지배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시설과 기반도 점차 확대되어갔다. 1003년(목종 6) 1월에 3경 10도의 박사, 사장에게 생도의 교육을 독려하고 교육효과가 큰 생도를 천거하라는 내용의 교서가 내려졌다. 문종대에는 외직제를 개정하면서 남경과 대도호부에 문사와 의사를, 방어진과 지주군에는 문학과 의학을 각각 1명씩 파견하여 지방교육과 의료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 미루어 3경과 12목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군현에도 향교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지방교육기관인 향교는 인종 때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인종은 식목도감(式目都監)으로 하여금 학식을 상정하도록 하여 국자감과 향학, 잡학 등에 입학자격과 교육과정, 과거의 규시를 마련하였다. 1127년(인종 5)에는 15개 조의 유신교서(維新敎書)를 표시하면서 14번째의 흥학책에서 “제주(諸州)에 향학을 세워 널리 교도하라.”고 하였다. 인종대에 설치한 향교는 행정구획의 대소에 따라 주학·부학·군학·현학으로 불렸으나 이는 모두 향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가지고 향교의 설치연대를 1127년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로 인정받아왔다. 앞서 말했듯이 지방의 관학인 향교가 문묘와 학교가 결합한 구조라고 볼 때 향교의 시초를 성종대로, 또는 인종대로 보아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향교의 설치연대 문제는 좀더 추구해야 할 과제인데, 여기서 1127년의 흥학책은 향교가 있는 고을은 시설을 정비하고, 없는 고을은 새로이 건립하여 교육을 강화하라는 조치로 해석하고자 한다.

1129년에 쓴 김수자의 『행학기(幸學記)』에 “글 읽는 소리가 중앙에서 외방에까지 이르고 있으니 이는 옛날에 없던 일이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됨에 따라 전라도에도 많은 향교가 신설되거나 정비되었을 것이다. 993년에 마련된 승주의 향교도 이때 다시 정비되고 시설이 확대되었다. 인종대에 전국적인 규모로 향교가 설치되고 지방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계수관(界首官)에 있는 향교에서 주변 고을의 학생을 모아 과거에 앞서 모의시험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수관 향교도회로 미루어볼 때 계수관이 관할하는 예하 군현에는 상당수의 향교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고려 전기에는 상당수의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교육과 유학보급에 이바지하였다.

무인집권기에는 지방의 관학교육이 쇠퇴하였다. 무인정권이 성립하자 중앙 관서뿐만 아니라 지방 의직들도 무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자연히 문풍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몽고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하고 민생이 어려워져 지방교육의 쇠퇴는 당연한 일이었다.

성리학이 고려에 전래된 것은 고려 중기이다. 송나라와의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수용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고려에 전해진 것은 충렬왕 때부터이다. 원나라로부터 주자학이 전해지자 이를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여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불교계의 타락과 세속화로 인하여 새로운 지도이념의 도입이 필요하였고, 아울러 국내의 제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이념체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신진사대부들의 성장과 이들에 의한 성리학 수용은 유학교육의 발달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충렬왕대에는 대성전을 확장하고 원나라로부터 공자와 72제자의 도상을 그려오고 많은 서적을 구입하여 국학에 비치하였다. 충선왕은 10여 년간 원의 수도에 머물면서 만권당을 열어 원의 명유들과 교류하면서 경사를 강구하고, 고려의 문신들을 불러 이들과 교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학 진흥책은 무인집권기에 쇠퇴하였던 지방교육에 활력소가 되었다. 원의 간섭 이후 역대 왕들의 흥학책과 성리학의 전래 등으로 유학교육은 부흥하였으며, 지방의 향교들도 차츰 안정되었다. 이당시에 여러 향교가 중수 또는 신설되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향교의 부흥은 중소지주층이나 향리의 자손들이 향교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하여 관료로 진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고려 후기의 향교는 공민왕 이후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다. 성균관 대사성 이색은 향교 학생을 시험 보아 유능한 자는 12도에 올리고, 12도에서 또 시험을 거쳐 성균관생에 올려 수학케 한 후 과거에 응시하도록 상소하였다. 창왕대에는 공사가 액수에 차지 않으면 수령에게 책임을 물어 수령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엄히 하였다. 1389년(공양왕 1)에는 대사헌 조준이 각 도에 교수관을 1명씩 파견하여 군현을 돌면서 교육을 독려하고, 시골에 은거하는 유사를 교도로 뽑아 향교 교육을 담당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390년에는 경중 5부와 서북면의 주부에도 교수관을 설치하였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방 향교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려 말의 지방교육을 진작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은 신홍사대부들이었다.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하고 교육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왕조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충렬왕 이후 고려 말까지 17개의 향교가 중수되거나 다시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향교의 토지와 노비가 권문세족들에 의하여 점령되기도 하고, 왜구의 침입으로 향교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았다. 그 때문에 향교건물을 복구하지 못한 채 개인이 세운 정사와 관아나 사찰의 건물을 빌려 교육하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 말에는 교육의 중심이 향교에서 사학인 서재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